

11/9(월) 사사기 묵상 13

사사기 3:31

이스라엘의 세번째 사사는 삼갈입니다. 삼갈에 대한 내용은 사사기 전체 말씀중 단 두 구절에서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 3:31,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육백 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 5:6,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세번째 사사 삼갈

삼갈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과 함께 6인의 소사사로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세번째 사사인 삼갈은 베일에 가려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정보가 성경 속에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에훗의 뒤를 잇는 사사였고, 드보라의 활동기에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3:30절(“**그 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팔십 년 동안 평온하셨더라.**”)과 31절(“**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육백 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의 말씀을 살펴볼 때, 삼갈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던 시기는 에훗의 승리 이후에 누렸던 80년간의 평화의 시대가 끝나갈 무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 4:1-2절을 보면 에훗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는 이미 가나안 왕 야빈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삼갈이 블레셋 사람 육백명을 막대기로 쳐죽였다는 사실은 블레셋 전체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기 보다는 일부 블레셋인들이 가나안 경계를 넘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이스라엘의 왕정 시기를 전후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대표적인 적국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주자, 외국인’이라는 뜻을 가진 민족으로 노아의 아들 함 계통 가슬루힘의 자손입니다(창 10:14). 학자들은 블레셋인을 갑돌 지역 출신으로 보는데 갑돌은 그레데 섬과 에게해의 여러 섬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렘 47:4, 암 9:7). 이들은 갑돌 지역에서 나와 기원전 12-13세기경 이집트 지역에서 살다가 람세스 3세에 의해 패전하여 결국 팔레스틴 지방의 남부 해안에 정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정착한 민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수 13:3, “**곧 애굽 왕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 시에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함으로써 블레셋은 역사 속에서 대대로 남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올무와 가시’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사 2:3,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소모는 막대기

삼갈이 블레셋인 육백 명과 싸워서 이긴 전쟁 무기는 단지 ‘소모는 막대기 하나’ 였습니다. 사사

에훗도 ‘한 규빗 되는 단창 하나’만을 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의 적진에 담대히 들어가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훗날 사사 기드온의 삼백명 용사도 미디안의 수많은 적군과 싸울 때 신식 무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항아리와 햇불 그리고 나팔’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당시 이미 철기 무기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삿 1:19,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삿 4:13,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 병거 구백 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현실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이러한 형편없는 무기로는 가나안과 그 지역에 일찍이 정착한 철기민족들을 결코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는 출애굽 이후 광야와 가나안 정복 시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이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목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역사하시고 한 때만 기적을 베푸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에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자주 잊어버리고 스스로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모든 적들을 정복했다면 이스라엘은 이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과 적들을 더 크게 생각하고 바라봄으로써 결국 두려움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제목>

1.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2. 우리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태일<미국>, 하영광<인도네시아>, 홍리브가<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의 가정과 현지 사역지의 건강과 필요 그리고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3.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주변에 코비드 19로 인해 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한 교우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